

메이지무라(明治村) 경찰자료관

구 도메 경찰서 건물은 1889 년 세워져 79 년간 쓰였습니다. 당시 경찰 업무와 소방 업무는 통합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경찰서와 소방서 역할을 겸했습니다.

건물은 1987 년 복원되어 경찰자료관으로 문을 열었고, 경찰과 소방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. 1988 년에는 미야기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26 년에 세워진 높이 20m 의 망루는 2015 년 미야기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

경찰서는 일본식과 서양식 스타일을 조화시킨 것으로 알려진 건축가 야마조에 기사부로(1843~1923)가 설계하였습니다. 판자를 댄 외벽이 독특한 2 층 높이의 목조 건물, 하얗게 칠한 기와, 조각된 기둥, 그리고 입구 위의 발코니가 특징입니다. 복원 과정에서 메이지 시대(1868~1912)의 취조실 및 구치소의 토대가 발견되어 두 공간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. 현재 재현된 공간은 당시 법 집행 시설 건축의 귀중한 사례로 쓰이고 있습니다.

전시에서는 공공안전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, 메이지 시대 범죄자들의 활동 및 법과의 관계를 소개합니다. 문신 시술을 행한 자, 미등록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등 지역 범죄 일러스트가 경찰 제복 및 사벨(서양식 장검)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. 로비에서는 하얀 경찰용 오토바이와 1980 년대 닛산 스카이라인 경찰차를 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

경찰 관련 굿즈를 파는 작은 기념품점도 있습니다.